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2)

기록문화의 발달에 따라 받아쓰기, 녹음에 이어 영상을 활용하는 시대이다. 어렵지 않게 동영상 카메라에 구술로 기록하는 역사를 담는다. 6·25 전쟁 후 어린 진관의 출가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당시 진관의 눈에 비친 사찰문화와 말한다. 서당 다니던 어린이 진관의 갈광질광 출가 과정과 그의 저항적 성격을 들어본다.

“〈쟁자〉를 보면서는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고 백성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다. 아 요걸 그 선생한테 고 때 마침 그 이제 4·19 혁명이 막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고 서당만 다니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선생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고 이승만에게 대해서 반대를 하는 고런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애요. 그러나 고민 하면서 훈장으로 하고 고민하고 요런 것이 모습이 한 쪽 조그마한 방에서 문 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단. 물을 이렇게 한 쟁수 떠놓고 그 조상에 그 절을 하는 것을 또 보고 그런 게 이제 밑에 아이들한테는 고 모습을 안 보여주지만 옆듣고 보면 항상 그 이제 국가 국가가 잘 되어야 이렇게 되는 요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일은 나도 이제 저 훈장선생이 그 뭐 민족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걸 계속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의 모범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해준다. 중학교를 포기하고 서당에 다니던 진관은 선생님의 국가관을 목격하게 된다. 4·19 혁명은 1960년이므로 이때 진관은 서당에 다녔던 것이다. 서당 선생님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성토했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청수를 떠 놓고 조상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훈장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자고 했고, 그 가르침에 따라 미래를 설계했노라고 구술한다.

“차라리 서당에 가 있는 게 〈쟁자〉 앞으로 막 사서삼경 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요렇게 해주는 바람에 거기서 학원 아니라 서당에서 아 또 평생 살 일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그 선생이 또 불교를 알아야 된다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날로 내가 그 흥복사라는 데를 들어갔지.”

서당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진관 소년은 절을 찾아가게 된다. 12살 소년은 훈장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출가의 길을 선택한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었다.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부였다.

“마을 뒷산에 흥복사에 가보니까 그 훈장선생이 가르쳐줬던 거랑 완전히 틀리더라고 보니까. 절집에 들어가니까 그 때는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책을 읽지 말

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인제 소유해서는 안 되고 마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그 흥복사에 에~ 인제 정오 스님이 인제 계셨는데 아주 인제 절집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 요거를 가르쳐줬는데 거기서 바로 미륵부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그 정오 스님이 해줬지 인제.”

진관 스님은 구술하면서 당시의 집안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서당 선생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많은 식구들의 입 하나를 덮어야 한다는 진관의 심경이 추측된다. 자신은 물론 부모모든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는가. 식발염의에 수도정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진관 소년은 흥복사 주지를 만난다.

“〈쟁자〉를 읽고 〈명심보감〉을 보고 또 인제 이 쪽 그 정치 뭐 이런 게 좀 아는 소리를 아마 내가 했던 거 같애. 그러니까 아는 소리를 하니가 정오 스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잘 생기고 아주 자비스럽고 고기가 자비스런 모습이 넘치는 스님이야. 아주 편안하고 인제 이렇게 하는 스님인데, 나는

불교 알아야 한데서 출가 결심

뒷산 사찰에 갔다 감사로 공작 출가

내 그릇이 지금 안 된다.’ 그 스님이 그래. ‘내가 너를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줄 테니 이것 가지고 계룡산에 계룡산에 있는 저 그 암자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라.’ 그러기에 그 때는 걸어서 찾아서 가는데 가다가 그 길에 어느 딱하니가 길을 어른한테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야될지.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팔불출처럼 손바닥에 짐을 뺐어가지고 딱하니가 아이 저리 짐이 저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 간 곳이 또 금산사예요. 네.”

6·25전쟁 후 베이비붐이 일었고 세상에 진관의 후배들이 많이 태어났다. 진관의 친동생들도 여럿이다. 사찰이 아동들을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복지시설이었던 셤이다. 많은 숫자의 아동들이 절에서 성장했다. 계룡산 암자를 찾아가던 진관은 영동하게도 김제의 금산사를 방문한다.

“그래서 인제 금산사에 가다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가 가는데 그 호수 위에 또 절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인제 그리 들어갔어요. 거기 금산사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서 그 미륵교파들이 있는 그 지어이라. 그래서 거기 금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받아졌으면 내가 그 쪽



어릴 적 서당 훈장에게서 배운 국가관을 진관 스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진관 스님이 2002년 미군차량에 숨진 호순·미선양 사진 및 소파(SOFA) 협정 개정과 미국 측의 사과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 가게 되는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금산사로 가라고 그러가지고 금산사에 들어가서 인제 거기 인제 한 일주일 있었죠.”

흥복사 정오 스님이 써준 서찰을 들고 금산사를 찾았다. 계룡산을 가지 않고 모악산 금산사로 간 것이다. 미륵불을 모신 금산사에서 어찌어찌하여 일주일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미륵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다.

“거기(금산사) 가서 어~ 인제 가니까 하루 종일 일만 시켰는데 뉘 일을 시키냐. 물 길르는데 시키더라고. 뭐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몰만 했는데 그런 게 아마 그 실험이었던 거 같아 보니까...”

“혜덕 스님이 나를 인제 불려더니 그 금산사 대밭이 있어요. 대밭에 가 가지고 인제 몇 대 두드려 맞았어. 길들인다고 해 가지고 어? ... 나는 〈쟁자〉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어떻게 그 대밭으로 끌고 가 가지고”

〈쟁자〉를 읽었다고 말한 것이 허근이었 다. 어린 진관은 맞아서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 스님으로부터 얻어맞고는 또 〈쟁자〉의 구절을 들이대며 “왜 때리느냐”고 반발했던 것이다. 불의에 맞서려는 진관의 생각

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다. 행자 생활의 일면을 보여준다.

“정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겨울에 인제 계룡산 감사로 갔죠 인제. 감사 가니까 어떤 스님이나면 키가 큰 스님을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입산하러 왔습니다. 인제 완전히 저저 숙달이 됐으니까 다른데서 하도 당했으니까는 이제 내가 여기서 다시는 어떠한 그거 있어도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드디어 감사에 들었다(1960). 그러나 어린 진관은 감사에 들기 전 여러 사찰을 방문했지만 행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입문하지 못했다. 대전역이나 다방 같은 곳에서 잤다. 몇 주간의 방황 끝에 계룡산 감사의 문을 두드렸다. 감사의 너그러웠던 원주(종무) 스님이 용모(진관)의 입문을 허락했다. 정오 스님의 서찰이 통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행자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밭에는 이미 50여 선배 행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형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일체중생의 구제보살 닌쇼(忍性)

어머니 유언따라 출가한 구제보살

일생을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 닌쇼 상인(1217~1303)이, 그가 1243년에 세운 일본 최고(最古)의 나한자 의료구제시설인 키타야마 주하치켄토(北山十八間戶)에서 활동할 때였다. 어느 날 손발이 비틀어져 걸을 수도 없는 중환자가 찾아왔다. 닌쇼는 이 환자를 등에 업고 밤낮으로 돌보며, 특히 밤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이윽고 임종이 다가올 무렵 환자는 닌쇼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 그때는 내 얼굴에 반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죽었다. 그 후, 닌쇼의 제자 중에 얼굴에 반점을 가진 자가 나타나 닌쇼를 도왔다고 한다. 닌쇼는 15세에 어머니가 타계할 때 남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유언을 새기며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와서 본 나라(奈良)의 카쿠안지(額安寺)에 들어갔다. 닌쇼의 연보인 〈성공대덕보(性公大德譜)〉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의 사후 추선을 위해 고대



닌쇼 상인 초상, 카나가와현의 쇼요지(稱名寺) 소장

일본 최초로 나병환자 구제 시설 어머니 영향으로 문수 보살 모셔

민중 구제의 보살 교키(行基)가 세운 치쿠린지(竹林寺)에서 문수보살을 신앙했다고 전한다. 닌쇼의 천민 구제활동의 사상은 이러한 문수신앙에 기반하고 있다.

1240년 24세 때에 진언율종의 조사 에이존(叡尊)이 주석한 사이다이시(西大寺)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하고, 어머니의 30주기에 문수보살이 그려진 불화를 비인숙(非人宿), 즉 천민 구제를 위한 숙소에 안치하고 공양하고자 한 원을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17개소의 나병환자숙소로부터 1000명을 모아 음식을 배풀고, 재계(齋戒)하기를 권하며 자선구제활동을 시작했다. 천민·결식자·병자들이 바로 문수보살이며, 이들을 구하는 것은 문수보살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진언율종을 공부하면서 대승불교의 근본인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확고히 하였다. 당시에는 교키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신앙이 유행했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 사회적 약자 구제를 목표로 한 문수회(文殊會)가 행해지고 했다.

닌쇼가 살다간 13세기는 폭우, 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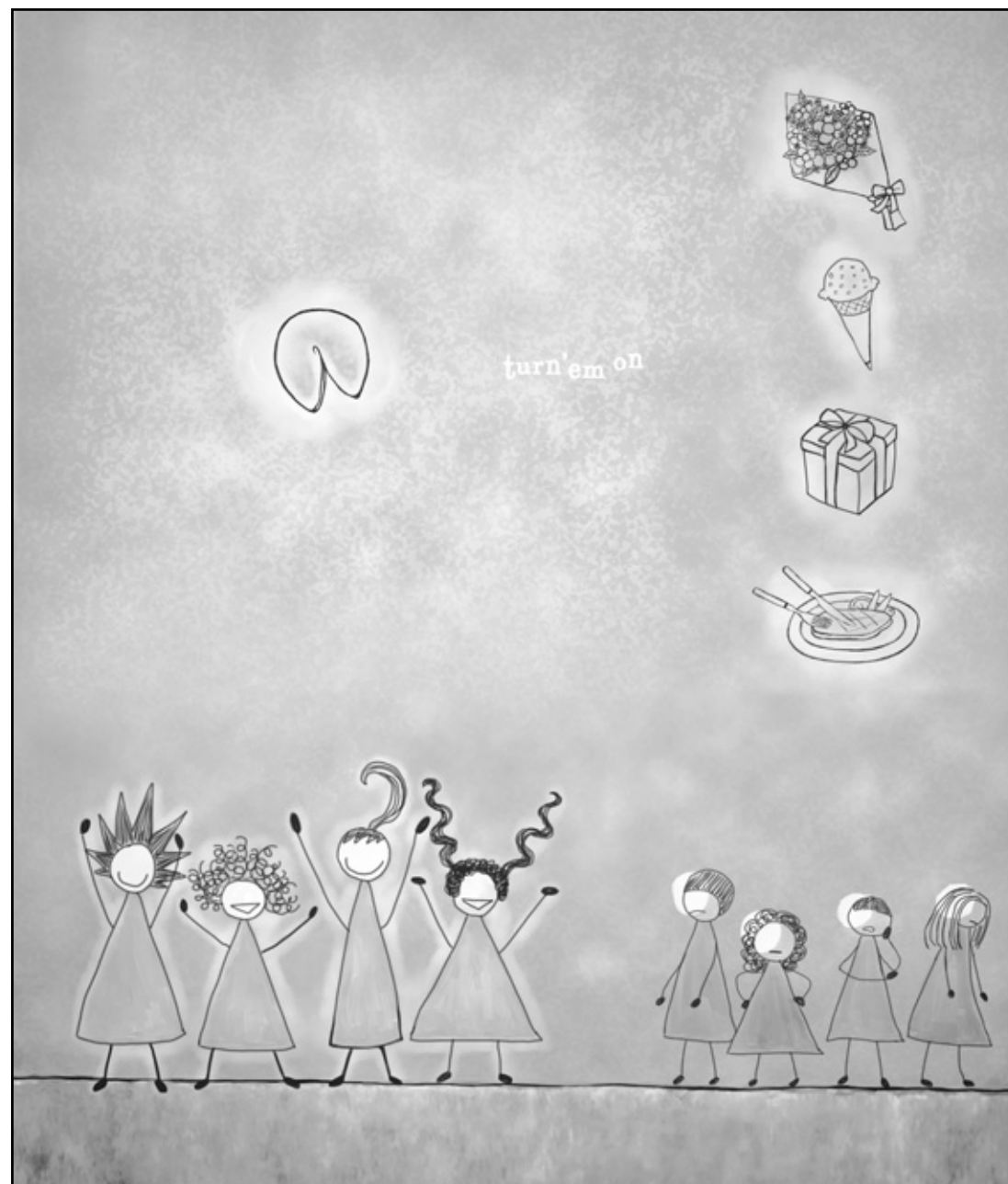
한과 등에 의한 대기근으로부터 전국에 걸친 흉역, 역병의 만연 등으로 민중이 오랜 동안 고통 받고 있었다. 당시의 역사서에는 “병자·고아·시신을 노변에 버리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때의 사회상을 그린 ‘아귀초지(餓鬼草紙)’에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시대적 고통 속에서 관제화된 불교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스승과 함께 닌쇼는 불법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진언율종의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민중의 고통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대사회에 소속된 관승이 아니라 구도에 임하면서 민중 가운데 들어가 사회활동을 행하는 등세승으로서의 일생을 일관하며 명리를 초월했다.

그는 스승의 뒤를 이어 사이다이시 한천의 황폐해진 비전원(悲田院)을 수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결식자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일본 최초로 치료를 겸한 나병환자 구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관동의 이바라키현을 무대로 포교하면서 카마쿠라 막부의 신뢰를 얻은 후, 고쿠라쿠지(極樂寺)를 거점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에 옮겼다. 이 고쿠라쿠지는 시체가 유기된 곳이었으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지옥과도 같은 장소였다고 한다.

그가 처음 입문했던 카쿠안지는 고대의 쇼토쿠(聖德) 태자와 인연이 있는 절로 알려져 있으며, 닌쇼는 태자가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를 건설할 때 함께 세운 사계원(四箇院)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중세 초기부터 이 시텐노지 서문 부근은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인식되어 병자·빈자·결식자·천민 등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